

2018년도 계리직 9급 한국사 A책형(2018. 7. 21 시행)

1.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살수대첩	ㄴ. 안시성 싸움
ㄷ. 황산벌 전투	ㄹ. 대가야 멸망

- ① ㄅ - ㄌ - ㄘ - ㄉ
② ㄌ - ㄘ - ㄉ - ㄅ
③ ㄘ - ㄉ - ㄅ - ㄌ
④ ㄉ - ㄅ - ㄌ - ㄘ

정답 : ④

르.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후기 가야 연맹은 분열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신라에 정복당하였고(532), 대가야는 진흥왕 대 신라에 멸망하면서(562) 가야 연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ㄱ. 수나라 문제의 뒤를 이어 즉위한 양제(604~617)는 영양왕 23년(612)에 113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강행하였다.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의 유도 작전에 말려 압록강과 살수를 건너 평양성 가까이까지 깊이 들어왔다가 지치고 굶주리게 되어 철수하게 되었다. 이때 수의 군대가 살수에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전멸하고 말았으니, 이를 살수 대첩이라고 한다(612). ㄴ. 당 태종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고 고구려는 국경의 여러 성이 함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안시성을 중심으로 민·군이 협력하여 당군을 물리쳤다(645, 안시성 전투). ㄷ. 백제와 신라 군대의 황산벌 전투는 660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백제는 나·당 연합군의 협공으로 사비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

2. 밑줄 친 ‘이 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나라는 5성막사를 두어 유학을 가르치고 『서기』라는 역사책을 편찬하는 등 유교 문화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사택지적비’를 보면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기>

- ㄱ. 16등급의 관등 제도와 6좌평의 제도를 두었다.
- ㄴ. 귀족들이 모여서 수상인 대대로를 선출하였다.
- ㄷ. 소경(小京)이라는 특수 행정 구역을 설치하였다.
- ㄹ. 지방에 22개의 단로를 두고 왕족을 보내 다스렸다.

- ① $\neg$, $\perp$
② $\perp$, $\sqsubset$
③ $\sqsubset$, $\equiv$
④ $\neg$, $\equiv$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백제의 학분과 사상과 관련된 서술이다.

ㄱ. 백제는 고이왕 대 중앙 관제를 정하여 6좌평(佐平)과 16관품(官品)을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여 지방의 수장들을 차등 있게 중앙 관료로 흡수하여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하였다. ㄴ. 백제 무령왕은 중앙 집권의 강화를 위하여 각지의 반란을 도발하고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한 뒤 왕족을 파견하였다.

ㄷ. 고구려의 경우 대대로를 비롯하여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나누어 맡았다. 백제는 왕 밑에 좌평을 비롯한 16등급의 관리가 있어 나랏일을 맡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상좌평이 최고 책임자였다. ㄹ. 통일 신라는 주요 지방에 특별 행정 구역으로 5개의 소경을 두어 일부 중앙 귀족과 옛 고구려, 백제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3. 다음 제도들을 시행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인 제도	◦ 사심관 제도
◦ 상수리 제도	◦ 경재소 제도

- ①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② 문벌귀족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③ 지방 세력을 통제하여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④ 귀족 세력을 억압하고 관리 등용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답 : ③

③ 상수리 제도는 통일 신라 시기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을 일정 기간 성루에 와서 거주하게 한 제도로써 고려시대에는 기인제도로 이어졌다. 한편 사심관 제도는 지역 연고와 기반이 있는 관원을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하려 한 제도이다. 이들은 중앙에 거주하면서 자기 출신지에서 부호장 이하의 향리 임명권을 부여받고, 자기 출신지의 치안과 행정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사심관은 신분 구별, 부역 조달, 풍속 교정, 향리 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조선 시대에 유향소와 경재소로 분화·발전되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의 제도를 시행한 공통적인 이유로는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중앙 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4.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천태종을 열어 이론과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 ① 정혜사를 결성하고 송광사를 근거로 활동하였다.
- ② 만덕산에서 백련사를 결성하고 정토 신앙을 강조하였다.
- ③ 불교 관계 저술 목록을 정리하여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었다.
- ④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여러 불교 종파의 융화·통일을 주장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이다. 의천은 천태종(天台宗)을 창시하고 사상적으로는 교관겸수(敎觀兼修)와 내외겸전(內外兼全)을 제창하여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였다.

③ 의천은 고려, 송,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편제종교장총록』이라는 불서목록을 작성하였다.

① 지눌에 대한 설명이다. 지눌은 동료 득재의 초청으로 팔공산 거조암에 머물며 ‘권수정혜 결사문’을 짓고 선종과 교종의 승려는 물론 유교, 도교의 사람까지 포괄하는 수행 결사를 조직하였다. 이후 좀 더 넓은 곳을 찾아 송광산 길상사(지금의 송광사)로 옮기고는 입적할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며 가르침을 폈다. ② 천태종 승려였던 요세는 만덕산에 백련사(뒤에 만덕사)라는 사찰을 세우고 법화신앙에 중점을 두고 참회를 강조하면서 백련사 결사 운동을 일으켰다. 또한 요세는 아미타불 염송을 통해 서방정토로의 왕생을 구한다는 정토(淨土) 신앙을 수용하였으며, 고종 19년(1232)에는 보현도량(普賢道場)을 개설하였다. ④ 신라 원효에 대한 내용이다. 원효는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통해 화쟁 사상을 제시하였다.

5. 다음 설명한 인물이 편찬한 서적으로 옳은 것은?

그는 고려의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이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조선 왕조 창건 후에는 이른바 ‘표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사신으로 명에 다녀왔다.

- ① 동국사략
- ② 조선경국전
- ③ 삼강행실도
- ④ 동국여지승람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권근이다. 권근은 공민왕 대 성균관 대사성 이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권근은 고려 말과 마찬가지로 성균관·예문관 등 교육·문화 관련 관서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한편 표전 문제는 명나라가 1395년(태조 4) 10월에 조선에서 파견한 신년(新年) 축하 사신단이 올린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에 무례하고 경박한 문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신단을 억류하고 표전문의 찬자인 정도전을 압송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조선에서는 정도전은 표전문과 찬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권근 등을 대신 보냈고, 권근은 명 태조에게 표전 사건의 경위를 잘 해명함으로써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종식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1396). 이는 권근의 학문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 응제시를 짓고 어제시를 받은 일로 인해 권근의 학문적 명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명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① 『동국사략』은 태종 2년(1402) 왕명에 의해 권근과 하륜을 중심으로 편찬된 것으로 고려 이전의 역사를 체계화하고자 삼국사를 성리학적 명분론에 맞게끔 재정리한 역사서에 해당한다. 한편 종종 연간 박상에 의해 편찬된 『동국사략』도 있었는데, 이는 개국공신을 비판하고 역성혁명에 반대한 사대부를 칭송하였다.

② 정도전이 지은 『조선경국전』은 조선 개국(開國)의 기본 정책을 규정한 최초의 법전(法典)으로,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③ 세종 16년(1434)에 간행된 『삼강행실도』는 충신 112명, 효자 110명, 열녀 94명을 뽑아서 전면에 그림을 그리고 후면에 사실을 기록하고 설명을 붙인 윤리서이다. ④ 조선 초기의 지리지 편찬의 완결을 의미하는 『동국여지승람』(성종 12, 1481)은 노사신 등이 성종의 명에 따라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의 시문등을 첨가·종합하여 50권으로 편찬하였다. 여기에는 정치·경제·군사 등 국가 통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총망라하였을 뿐 아니라, 인물과 시문 등을 수록하여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6. 다음 경제 정책을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대부분 철폐하였다.
- ㄴ. 공납제를 대동법으로 바꾸어 경기도에 시행하였다.
- ㄷ. 영정법을 시행하여 흉풍에 관계없이 전세를 확정하였다.
- ㄹ. 균역법을 통해 양인의 균역 부담을 군포 1필로 낮추었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ㄷ - ㄹ - ㄱ
- ③ ㄷ - ㄹ - ㄱ - ㄴ
- ④ ㄹ - ㄱ - ㄴ - ㄷ

정답 : ②

ㄴ.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광해군 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1608)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ㄷ. 조선 인조 대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ㄹ. 균역법은 영조 대 균역의 문란을 혁파하고자 실시(1750)한 것으로 일반 양민을 대상으로 1년에 2필씩 부과하던 군포를 1필로 경감해 준 제도였다. ㄱ. 신해통공은 1791년(정조 15) 신해년에 이루어진 통공책으로 난전의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가하고 시장의 독점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7.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농서들을 묶어 『농가집성』을 편찬하였다.
- ②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치밀하게 계산한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 ③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들고 이를 돌에 새겼다.
- ④ 우리의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소개한 『향약집성방』이 간행되었다.

정답 : ①

① 『농가집성』은 1655년(효종 6)에 신숙이 왕명을 받아 간행한 농서로 조선 전기에 간행된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초』와 16세기에 간행된 『구황촬요』까지를 모

두 함본하여 편찬되었다.

- ② 세종 때에 만든 칠정산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③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등에 새긴 것은 조선 태조 대의 사실이다. ④ 세종 15년(1433)에는 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등에 의해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정리한 『향약집성방』이 편찬되었다.

8.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 | |
|--|
| ㄱ. 동북 9성을 쌓아 여진족의 침입을 대비하였다.
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을 되찾았다.
ㄷ. 4군 6진을 설치하여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ㄹ. 강동 6주를 설치하여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
|--|

- ① ㄴ - ㄷ - ㄱ - ㄷ
② ㄴ ㄷ ㄷ ㄱ
③ ㄷ - ㄱ - ㄴ - ㄷ
④ ㄷ - ㄴ - ㄷ - ㄱ

정답 : ③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ㄹ. 고려 성종 13년(994)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는 거란의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고, 영토를 압록강까지 확장하였다. ㄱ. 고려 예종 2년(1107) 윤관은 부원수 오연충과 함께 17만의 대군을 이끌고 함흥평야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아 군사를 주둔시켜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ㄴ. 고려 공민왕 5년(1356)에는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도록 하였다. ㄷ. 조선 세종 때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인 북방 개척 정책을 펴, 최윤덕 등은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을 설치하였으며, 김종서 등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6진을 설치하였다.

9.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산 경영 방식에 덕대제가 유행하였다.
② 상민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③ 경시서를 두어 시전 상인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였다.
④ 동전을 재산 축적에 이용하여 유통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답 : ③

③ 경시서는 시전을 감독하고 불법적 상행위 통제, 도량형 통일, 물가 조절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1466년(세조 12)에 평시서로 이름을 고쳤다.

① 조선 후기 물주제에 대한 설명이다. 물주제는 민간 자본에 의한 광산 경영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인인 물주가 광산 경영 전문가인 덕대에게 자본을 공급하면 덕대는 채굴업자인 혈주와 채굴 노동자·제련 노동자 등의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였다.

18세기 말~19세기에는 불수제가 금광·은광·농광업에까지 적용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② 18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안이 노비들의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에는 각 사(司)의 노비를 제외하고 내수사와 궁방에 소속된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공노비 해방, 1801). ④ 동전은 교환 수단일 뿐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지주나 대상인들은 화폐를 교환 수단보다 고리대나 재산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동전의 발행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시중에서 동전의 부족 현상(전황)이 발생하였다.

10.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물은 비유하자면 샘과 같은 것이다. 우물물은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예가 사라진다. 심지어 농사가 황폐해져서 농사짓는 법을 잊고, 상업은 이익이 적어서 생업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사농공상의 사민이 모두 곤궁해져서 서로 도울 수 없게 된다.

- ① 혼천의를 제작하고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였다.
- ②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 공동 경작하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 ③ 청과의 통상 확대와 수레·선박의 이용, 신분 차별 타파 등을 주장하였다.
- ④ 『우서』에서 상공업을 진흥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에서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등의 내용을 통해서 소비와 생산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여 절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한 박제가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③ 박제가는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상업·수공업·농업 전반의 생산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경제 체제를 새롭게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청에 다녀온 후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또한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또한 박제가는 인재 등용 방식과 관련한 과거제 비판과 문벌 개혁론, 신분론 등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① 홍대용은 서양 과학의 근본이 정밀한 수학과 정교한 관측에 근거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주해수용』이라는 수학서를 썼으며, 혼천의(渾天儀)와 서양식 후종 등 여러 가지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어 농수각(籠水閣)이라는 관측소에 보관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바탕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이론적 세계관을 비판하였으며, 나아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전개하였다. ② 정약용은 토지의 균등 분배로 토지와 부(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론’을 제시하였다. 여전론에서는 토지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1여(閭)를 단위로 소유하게 하였으며, 30가구를 마을 단위의 공동 농장 제도인 1여(閭)로 하여 여민은 여장(閭長)의 감독 아래 공동 노동을 통해서 생산과 수확을 하고, 노동량에 따라서 수확량을 분배하고자 하였다. ④ 농암 유수원이 저술한 『우서』

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교하여 정치·경제·신분·사상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제시한 저서이다.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하였으며, 신분 세습의 고착화에 반대하였다.

11. 다음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ㄴ. 미륵사지 석탑



ㄷ. 석굴암 본존불



ㄹ. 문무왕 해중릉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ㄴ - ㄹ - ㄷ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ㄴ - ㄱ - ㄹ - ㄷ

정답 : ②

ㄱ.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는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에 진출한 것을 입증하는 순수비로,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인 진흥왕 16년(555)에 북한산을 순행하였을 때 건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ㄴ.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복원 과정에서 미륵사지의 창건연대와 창건주를 기록한 금제사리봉안기(金製舍利奉安記)가 발견되었는데, 이 봉안기에 의하면 무왕 재위 40년인 639년에 미륵사가 건립되었다고 한다. ㄹ. 문무왕 해중릉(대왕암)은 신라 30대 문무왕

(661~681)의 부덤이다. 681년 죽음을 맞은 분부왕은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불교식 장례에 따라 화장하여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고 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한다. ㄷ,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대성이 경덕왕 대인 751년 현세(現世)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佛國寺)를 세우고, 전생(前生)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세웠다고 한다.

12. 다음 내용이 실린 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중략)…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어떠한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 ① 청의 외교관인 황쑨셴(황준헌)이 저술하였다.
- ② 조·일 수호 조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 ③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가져왔다.
- ④ 지방 유생들이 상소를 통해 책의 내용을 비판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황쑨셴이 조선의 외교정책 방향을 논하며 중국과의 친교를 유지·확대하고, 미국·일본과 연대할 것을 주장한 『조선책략』의 내용 중 일부이다. 김홍집이 이 책을 들고 귀국하자 조선의 반향은 컸다. 정부 내에서 찬반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재야의 보수적 유생들은 1881년(고종 18년) 2월 영남 만인소를 필두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책을 불태워 버릴 것을 주장하였다.

② 『조선책략』은 이후 청의 중재로 미국과 수교(1882. 4)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① 『조선책략』은 일본 주재 청국 공사관의 참찬관 황쑨셴(황준헌)이 동아시아의 정세 및 조선이 취해야 할 외교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③, ④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은 『조선책략』을 들고 귀국하였고,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정부 내에서 찬반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재야의 보수적 유생들은 1881년(고종 18) 2월 영남 만인소를 필두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책을 불태워 버릴 것을 주장하였다.

13. 다음과 같은 역사론을 주장한 인물이 쓴 논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역사란 무엇이나.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일신보』였다. ㄷ. 보안회는 일본의 황부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전개하여 성공하였다(1904).

15. 다음 선언을 발표한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로 옳은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大本營(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 ① 이봉창 ② 안중근 ③ 강우규 ④ 김지섭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이다. 이 선언을 채택한 단체는 의열단(1919)이다.

④ 의열단원 김지섭은 1924년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국회의에 일제 총리를 비롯한 많은 대신과 조선 총독이 참석하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 입구하고 제국회의에 참석하는 일본 총리 등 요인을 처단하기 위해 도쿄에 도착하였지만 제국회의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바꿔 일본의 궁성을 폭파하기로 계획하였다. 1924년 동경 궁성 니주바시에 3개의 폭탄을 투탄하였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①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 1932년 1월 8일 일본 육군 관병식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왕의 마차에 수류탄을 투척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② 1909년 10월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사살하였다. ③ 1919년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에서 투탄한 인물은 노인 동맹단 소속 강우규이다.

16.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2.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 ① 순종의 인산일에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②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조직된 최대의 민족 운동 단체였다.
③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력하여 만든 민족협동전선체이다.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발하자, 진상 보고를 위한 민중 대회를 개최하려 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하고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한 신간회(1927~1931)의 강령이다.

①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은 1926년 6월 10일이고, 신간회는 1927년 2월에 결성되었다. 6·10 만세 운동은 조선 공산당이 천도교 측과 협력하여 대중 시위를 벌이려 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사전 발각되어 대대적인 검거가 일어나자 사회주의 계

열의 학생 운동 단체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독자적으로 만세 운동을 추진하였다.

② 신간회는 1929년에는 전국 140여 개의 지회와 4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적 규모로 발전하였으며, 일본에까지 조직이 확대되었고 만주에도 지회 설립이 시도된 일제 강점기 최대의 합법적 항일 단체였다. ③ 이상재(李商在), 안재홍(安在鴻) 등은 ‘미타협적 민족 전신의 수립’을 제창하면서 자치 운동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3·1 운동 이후 성장한 사회주의자들과의 협력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신간회가 창립(1927. 2)되었고, 회장에 이상재, 부회장에 홍명희를 선출하였다. ④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한 뒤, 민중 대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반일 시위운동을 전개하려 시도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허헌(許憲)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다수가 일제에 의해 구금되었다.

17. 다음을 암송하도록 강요했던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 | |
|---|
|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하련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신에협력하고 단결을 굳게 하련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
|---|

① 회사령 폐지

② 징병제 실시

③ 치안유지법 제정

④ 조선 태형령 공포

정답 : ②

1930년대에 들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한 일제는 우리 민족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일제는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내세워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 하였다. ‘황국 신민 서사’를 전국민이 암송하도록 강요하였고(1937), 신사 참배와 아침마다 일왕이 있는 도교를 향해 감사의 절을 하는 궁성요배를 의무화하였다.

②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강제 징병제(1944)를 통하여 총 20만 명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동원하였다

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는 넘치는 자본을 국외로 투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원료가 풍부하고 노동력이 값싼 조선에 눈을 돌렸다. 이에 일본 기업이 조선에 진출하기 쉽도록 1920년 회사령을 폐지하고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③ 1920년대 자유주의나 민족주의 사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한편,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등의 좌파 이론도 확산되고 있었으므로 그를 봉쇄하기 위하여 일제는 조선공산당이 창립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탄압하였다. ④ 1912년 공포된 조선 태형령은 1910년대 식민 통치의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법률로 1919년 3·1운동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폐지가 추진되고 1920년 4월부터 일본 내각이 조선 태형령 폐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18.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도에서 4·3사건이 발생하였다.

- ②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 ③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이른바 삼백산업이 성장하였다.
- ④ 친일 청산을 위한 기구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답 : 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다.

- ① 제주 4·3사건의 발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4월 3일의 사실이다.
- ② 농지 개혁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1949. 6)되면서 실시되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으로 인해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이 수립되어 일제 강점기 이래 높은 소작료로 고통을 받던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 근대 농업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③ 1950년대 원조 경제의 상황이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로 삼백 산업 [밀가루(제분)·설탕(제당)·면직물(면방직 공업)]이 성장하였다.
-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어 1948년 8월 16일 헌법 제 101조에 의거,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반민기초특위)가 구성되고, 9월 22일 제헌 국회에서는 친일파를 처벌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법률 제3호 반민족 행위 처벌법(약칭 : 반민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 1948. 10. 23)가 설치되고, 본격적 활동을 개시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